

어명소 2차관,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피해상황 점검

- 시멘트 업계 피해상황 점검 및 물류 피해 최소화 대책 논의 -

- 어명소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1월 25일(금) 오후 4시 30분부터 충북 단양 소재 한일시멘트 공장을 방문하여 시멘트 운송차량의 운송현황 및 업계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물류 피해 최소화 대책을 논의하였다.
- 시멘트 업계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경청한 어 차관은 “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행위로 인해 시멘트는 평시 출고량의 5%인 1만톤만 출하되고 있는 상황이며, 그로 인해 레미콘 공장 및 전국의 아파트, 공공건설 및 주요 인프라 건설 현장까지도 업무가 중단되고, 관련된 건설근로자들도 일을 중단하게 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”라면서,
 - “컨테이너와 BCT에 대해서는 일몰제 기한을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만큼 집단운송거부행위를 즉각 철회하고, 조속히 업무에 복귀하기를 재차 촉구”한다고 밝혔다.
- 이어서 어 차관은 “비상수송대책 등 가용한 모든 대책을 동원해 물류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고, 출하방해, 운송 저지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”며 정부의 산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의지를 강조하였다.
- 또한, 단양 시멘트 공장 현장을 둘러보고, 현장에서 농성중인 화물연대 노조 관계자들을 만나 조속한 복귀를 요청하였다.

2022. 11. 25.

국토교통부 대변인